



중국 연안항만 컨처리능력 5년동안 80% 확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중 대형선석 등 건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중국은 향후 5년 동안에 연안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현재보다 80%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중 상해국제항운센터, 대련, 천진, 청도, 하문, 심천, 광주의 7개 항만에 대형 컨테이너선석을 건설하기로 했다. 중국의 총 화물처리능력은 오는 2010년까지 20억톤분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 주도로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교통부의 2006년의 항만건설의 중점 항목은 석탄, 원유, 철광석, 컨테이너의 4개 품목으로서 선석 정비 외에 환적수송시스템의 정비, 항만의 항로조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도 각 항만에서는 확장공사나 도로건설을

하고 있지만, 항만건설의 낙후를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이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항만의 개발계획을 정리한 '전국연해항만 배치계획'은 지난 1월 하순까지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얻었다.

중국은 2001-2005년까지의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컨테이너, 원유, 광석, 석탄의 전용부두 950개소를 정비하여 2005년에 화물중량과 컨테이너취급량 양쪽 모두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상해항은 2006년에 컨테이너 취급량이 2,000만TEU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으로 취급량이 많은 심천항도 2005년부터 시작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의 조기 관세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역내 무역량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하이퐁과 호치민 등 3개 항만 정비기로 컨테이너취급량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2% 증가

베트남은 컨테이너취급량이 매년 12% 가량 증가함에 따라 하이퐁과 호치민 등 주요 3개 항만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베트남의 구엔·빅·닷트 계획투자성 차관은 2월20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수송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역항은 하이퐁, 호치민 등의 3개 항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컨테이너화물 취급량은 매년 12% 전후로 증가하여 지난 2005년에는 170만TEU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외국투자법과 기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히고 일본계 기업에 대해 베트남의 수출 확대 등에 연결되는 투자를 호소했다. 외국투자법과 기업법은 금년 7월에 시행된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는 지난 2001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5년간 투자액이 185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본계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총 600건에 65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신규 4억1,000만달러, 추가 4억8,000만달러 등 9억달러에 달했다.